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원 다 흰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원 다 흰

인 준 서

원다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장학번호-B0018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Scholarship
(Humanities, Social Sciences area) funded
by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No. B00180)

논문개요

‘악성댓글(악플)’은 인터넷 사용에 따르는 역기능적 행위로써 현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 215명, 중학생 246명, 고등학생 250명으로 총 711명이었으며,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도구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정의한 ‘사이버 언어폭력 유형’을 바탕으로 제작한 악성댓글 사용 경험 설문지, 자아존중감 척도, 한국판 소아-청소년 불안척도(RCMAS), 아동 우울 검사(CDI),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 척도(FACES-III)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악성댓글 사용 수준과 불안·우울 수준은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었으며,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 수준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악성댓글 사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사이버 언어폭력, 악성댓글, 자아존중감, 불안·우울, 가족적응성·가족응집성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

II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언어폭력	8
1)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	8
2) 사이버 언어폭력의 실태	9
3)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원인	11
2. 악성댓글	18
1) 악성댓글의 개념	18
2) 악성댓글의 실태와 영향	19
3) 악성댓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3
3.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25
1) 자아존중감	25
2) 불안과 우울	27
3)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30
4. 연구문제 및 가설	34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36
2. 측정 도구	36
1) 악성댓글 사용 경험 설문지	36
2) 자아존중감 척도	37
3) 소아·청소년 불안척도	38
4) 아동 우울 검사	39

5) 가족적응성과 응집성 척도	40
3. 자료 분석	41

IV 연구 결과

1.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용 실태	42
1)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3
2) 악성댓글 사용 수준과 인터넷 사용 시간	45
3) 성별·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매체	46
4) 성별·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이유	48
5)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시 정서 상태와 대처 행동	50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 차이 검증	53
3. 악성댓글 사용 및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 간의 상관 분석	54
4.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56
1)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56
2)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불안	57
3)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우울	58
4)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59
5. 악성댓글 사용을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변인	61

V 논의

1. 연구 결과 및 논의	62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67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	9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42
<표 3>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	44
<표 4>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	45
<표 5>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	46
<표 6>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매체 현황	47
<표 7>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매체 현황	48
<표 8>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이유	49
<표 9>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이유	50
<표 10>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여부	51
<표 11>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시 정서 상태	52
<표 12>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시 대처 행동	53
<표 1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차이	54
<표 1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55
<표 15>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57
<표 16>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불안	58
<표 17>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우울	59
<표 18>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우울의 사후검정 결과	59
<표 19>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60
<표 20>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	61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통계청(2010)에 의하면 국내 일반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은 1994년 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상용화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2010년 현재 81.6%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무선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접속률을 포함하여 조사한 OECD 31개국의 2009년 현재 가구별 인터넷 보급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가구별 인터넷 보급률은 무려 95.9%에 육박하여 가장 높은 인터넷 사용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 환경 속에서 우리는 컴퓨터와 핸드폰, 스마트폰(PDA)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한계를 극복,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다루며 편리하고 유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 이용은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등을 매개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현대인의 풍요로운 지식 축적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대표하는 인쇄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 같은 대중매체와는 달리 정보 제공자와 취득자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주요 소통 방식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과 정보 및 각자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폭넓은 사고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의 긍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인터넷 이용에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

나라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로 명명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및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댓글’이라는 짧고 쉬운 형식을 통해 개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터넷 문화와 어우러지고 곧 ‘악성댓글’이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표현되면서 심각한 부정적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악성댓글은 성별과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가해 행위가 텍스트로 남겨져 몇 번이고 피해자에게 반복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것이 가진 즉시성과 과급력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 글을 본다고 생각하게 만듦에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자아내고, 루머가 확대·재생산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훨씬 큰 고통을 느끼게 하므로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Campbell, 2007; 서울신문, 2011a).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위험성 강조와 함께 한층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성형 의혹이나 사생활에 대해 네티즌들이 작성한 악성댓글을 보고 심리적 좌절감,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조선일보, 2011)고 증언하는 방송인의 사례가 종종 공개되고 있다. 또한 개인적 신상과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과 인신공격 및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써 자살을 택한 유명 방송인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악성댓글의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 확산은 현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비단 방송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에서의 키 작은 남성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악성댓글 공격을 받고 개인 신상마저 인터넷에 날날이 공개된 여대생의 사례(동아

일보, 2009b)와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한 여고생이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외모와 관련된 내용의 악성댓글을 보고 상처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례(경향신문, 2007)가 대표적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악성 댓글로 인하여 한동안 극심한 분노와 우울증 등으로 정서적 측면에 적잖이 손상을 입은 학생들의 상담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성댓글 사용을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증가는 역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나아가 국가적 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대처 방안 확립을 위하여 여러 기관 및 단체가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2007년에 일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공연한 사실 및 허위 사실의 유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을 규제해야 할 가해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을 선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김태진, 2008), 인터넷의 익명성이 공격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실명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무차별적인 공격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수의 의견개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무수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명으로 운영되는 몇몇 게시판에서도 폭언과 욕설 등의 사이버 언어폭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법 개정 이후 이 같은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신뢰할 만한 결과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김재휘, 김연정, 2004). 이 외에도 개인 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이성식, 2006)는 주장이 실명제의 부작용으로써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측면의 접근 외에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하여 악성댓글을 포함한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정원, 이성흠(2010)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실효성이 낮으며, 인터넷상에서의 규제는 국제적 협력과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수반될 때에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사이버 폭력 문제의 핵심은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즉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진 네티즌들의 건강한 인터넷 이용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정승민, 2007). 이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도 윤리교육 시간과 정보화교육 시간, 그 밖에 재량시간을 빌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다루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의식 개선을 위한 사이버 폭력 추방 캠페인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상민(2000)은 윤리의 문제는 기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현실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제 '인터넷 심리'를 이해하여 새로운 사이버 현실의 윤리와 가치를 모색하는 데 노력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공간에서의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초기 심리학의 목표였던 인간 행동의 기본 원리와 이 행동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 탐색을 근간으로 하는 심리학적 접근이 주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일탈행동 및 공격행동, 특히 피해가 심각한 언어폭력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을 것이며 계속해서 법적 장치나 규범의 필요성만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황상민, 2004; 조아라, 2009에서 재인용).

상기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해를 막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측면보다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심

리학적 측면의 근본적인 접근이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외국에서는 3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이고 5명 중 1명은 가해자(Walrave, M., Heirman, W., 2009)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문화권에 따라 'Cyber bullying'과 'ネットいじめ(넷 이지메)'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사이버 폭력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유형을 분류하여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다루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유형 분류에 따른 사이버 폭력의 실태를 다룬 연구는 Willard(2007), Johnson(2009), Wong-Lo, Bullock(2011), 吉田(2009) 등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통적인 형태의 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비교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Willard, 2005). 한편 인터넷 이용 환경 및 개인적 특성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탐색해 본 연구도 있으며(Bauman, 2007; Mesch, 2009; Walrave, Heirman, 2009; 山崎, 原, 2010; 内海, 2010; Dempsey, et al., 2011), 사이버 폭력의 피해 예측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와 특징을 설명한 연구 또한 수행되어 왔다(Li, 2007; Dilmac, 2009; 寺戸, 2009; 原, 2011).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법과 대책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학생 피해자 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 쟁점화 되는 과정에서 부모와 교육자, 심리학자의 역할을 다룬 연구(Campbell, 2007; Willard, 2007; Diamanduros et al., 2008; Shariff, 2008)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폭력의 유형 분류와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주리에, 권석만, 2001; 오승희, 최진식, 2005; 양윤재 외, 2007; 성윤숙 외, 2008), 사이버 비행의 관점에서 사이버 폭력을 다룬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라민오, 2001; 한종욱, 2001; 전숙영 외, 2005; 이은선, 2006; 김태균, 2007; 손진희, 손은령, 2007; 심진숙, 2008; 이성식, 2009b; 박현숙, 2010). 나

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성동규 외, 2006; 이성식, 2006, 2009; 이정기, 우형진, 2010), 특히 개인이 지각한 환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 폭력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재휘, 김연정, 2004; 장미, 조아미; 2006, 김달환, 2007; 주지현, 2008; 조아라, 2009, 2010; 박현숙, 2010).

현대 사회와 문화는 인터넷을 제외하고서는 논할 수 없을 만큼 인터넷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에 동반되는 역기능적 문제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 파악과 더불어 각 학계에서 수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미디어적 의의와 법제화 및 그에 따른 기술적 측면, 그리고 예방을 위한 윤리 교육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을 다룬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언어폭력 중 부정적 양상의 파악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빈번하게 빚고 있는 악성댓글을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연령층은 아동부터 성인층까지 무척 폭이 넓지만 전 연령층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악성댓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악성댓글을 더 많이 쓴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권미애, 2008). 이는 조아라(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한편 주요 포털의 사이버폭력 게시물에 대한 삭제건수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통계 자료는 초등학생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박순미, 2009). 이는 초등학생의 비적응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그들에 의한 사이버 폭력 행위의 원인과 방지 대책 마련

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를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악성댓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악성댓글 사용 기제로써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사용을 줄이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도덕적 차원 이상의 사이버윤리 교육 및 심리 치료·예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근거 자료로써의 활용을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언어폭력

1)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 ‘육체적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태까지의 폭력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행해지는 반사회적 행위로 설명되었으나,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발생함으로써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새로이 등장한 유형의 폭력이 바로 ‘사이버 폭력’이다. 사이버 폭력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 혹은 권익을 침해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성동규 외, 2006)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형태의 폭력이 가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폭력’의 사전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엄연히 폭력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 폭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메신저, 이메일 등 언어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특정 인물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이나 인신공격, 성희롱과 같은 모욕적인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거짓된 사실을 진실인 마냥 유포하는 등의 공격 행위를 ‘사이버 언어폭력’이라고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6)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내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표 1>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

유형	내용
욕설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냥 단순히 재미로 욕설을 하는 경우
비방 /명예훼손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헐뜯는 행위.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을 헐뜯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도배	채팅방을 독점하는 경우. 같은 내용의 욕설이나 의미 없는 글들을 연속해서 게시하여 다른 사람이 말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
성적욕설 /음담패설	성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
유언비어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을 인터넷상에 퍼뜨려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사이버 언어폭력의 실태

최근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매체에서는 연일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는 소식을 접하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폭력 행위의 감소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건설적이다.

인터넷 이용에 따른 역기능적 측면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심각성 인식 수준을 조사한 통계 결과는 이미 여럿 발표된 바 있다. 2007년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의 심각성에 대한 중복응답 설문 결과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이버폭력’(8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심각한 유형의 사

이러한 사이버폭력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28.0%), ‘언어폭력 등 모욕’(27.4%), ‘명예훼손’(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 2010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서는 26.4%(중복응답)의 사람들이 인터넷 이용 시 생기는 불편 사항으로 난무하는 악성댓글과 욕설 등 익명성의 악용을 꼽았으며, 인터넷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쉽게 생성되고 확산된다고 한 응답률이 62.1%(중복응답)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신고·심의현황 및 사이버범죄현황’ 자료는 명예훼손·욕설 사용 등의 사이버 폭력이 신고 건수만 2004년 3,141건에서 2007년 4만 6,72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욕설로 인한 사이버 폭력은 2004년 1,066건에서 2007년 4만 33건으로 3년간 15배가량 폭증했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세계일보, 2008). 이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과는 달리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반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실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기인식은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를 단지 폭력 행위의 증가세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추후 범죄 행위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아동·청소년 비행의 관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사이버 비행 유형 중 성비행과 폭력비행은 각각 성적인 내용의 음란한 대화 행위와 욕설·비방 등의 폭언 행위를 포함한다(라민오, 2001). 또한 내용 유형에 따라 분류한 사이버 비행 행위 중 ‘사이버 성폭력 및 사이버 스토킹’과 ‘유언비어와 언어폭력’은 각각 인터넷 게시판의 글 게시를 통해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과 비방, 욕설 및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포함하며(심진숙, 2008), 이는 곧 앞서 살펴본 사이버 언어 폭력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범죄 행위로도 설명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사이버 폭력이 범죄 행위라는 데 대한 낮은 인식률로 인한 가해 및 피해의 증가 현상(경찰청, 2010; 공감코리아, 2010)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는 학업 집중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알코올 사용과 흡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분노, 스트레스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동안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주고 있으며(장미, 조아미, 2006; Paulson, 2003; Mesch, 2009), 심지어 자살과 살인 등의 보복을 야기하기도 한다(경향신문, 2007; 중앙일보, 2011; Brown et al., 2006; 吉田. 2009; 山崎, 原, 2010).

따라서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볼 때 사이버 언어폭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3)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원인

사이버 언어폭력의 실태를 파악한 학자들은 심각성 및 그로 인한 피해를 깨닫고 이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관점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미흡한 정책과 제도

사이버 언어폭력 중 악성댓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본 정승민(2007)은 악성댓글의 형성 원인을 묻는 설문에서 전체 100% 중 '법제도의 미흡'과 '관련 기관의 단속 미흡'이 각각 8.5%와 8.1%의 응답률을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비교적 큰 수치는 아니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법제적 측면에서 마련된 제도가 아직 미흡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포함, 사이버 폭력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폭력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정요구에 대한 추후 조치결과를 확인할 길이 없어 사이버 폭력 및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세계일보, 2008).

한편 국가 사법기관에서는 2007년 일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적으로 급속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악의적 사이버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김태진, 2008). 그러나 개인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내용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법규범을 통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규범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박정원, 이성흠, 2010), 나아가 발언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는 등 찬반 논란 또한 팽팽한 상황이다.

(2) 인터넷 공간의 구조적 시스템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공격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특성과 원인으로써 가장 많이 지목되는 ‘익명성’이 바로 위 문제의 시발점이다(정승민, 2007; 황지영, 2008; 이성식, 2005, 2006, 2009a). 익명의 상황에서는 공적 자아의식과 사적 자아의식 및 통제력이 낮아짐으로써 충동적인 성향을 띠고 이는 곧 사이버 언어폭력을 유발한다(이성식, 2004a).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의 존재로서의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인격화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표정이나 제스처 등 사회적 맥락의 정보가 한정되어 자기중심적이고 낮은 통제력을 보이고(Sproull & Kiesler, 1986; Joinson, 2003; 황지영, 2008에서 재인용), 의사소통과정에서 의견이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인터넷 관리자의 입장에서 원인을 탐색한 연구도 있다. 이성식(2009a)은 포털 인터넷 사업자나 중간관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배치하거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게임의 경우 난무하는 욕설을 막기 위해 금치어를 설정하여 아예 작성이 되지 않도록 막거나 ‘XX’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욕설은 다른 단어 표현으로 얼마든지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현재 몇몇 포털들은 댓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율적 규제를 위하여 악성댓글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정 횟수 이상의 신고를 받으면 그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포털 내에서 자체적으로 질서 있는 인터넷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고 및 블라인드 처리되어있지 않은 불쾌한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건강한 인터넷 분위기 조성 운동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댓글 시스템에서 일부 유명 포털사이트에서는 글을 읽거나 작성하려면 로그인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댓글 란을 바로 눈에 띄지 않게 접어두어 접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악성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로그인 후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한 편의 독자적인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짤막하게 한 마디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책임의식의 부재를 조장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조아라, 2009).

(3) 사회적 집단성의 발현

사회적 요인의 관점에서 본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으로는 ‘집단성’을 들 수 있다. 황상민(2000)은 사이버 집단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동조 행동, 집단 사고, 집단 극화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동조 행동’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집단의 압력과 행동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가치 및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집단의 행동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동조행동의 단적인 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정보 공유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 SNS인 트위터는 다른 사람이 언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Retweet(리트윗, RT)’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는데, 리트윗의 기능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자는 데서 시작했음을 바탕으로 리트윗 된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는 또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의 중요성과 사실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정보의 확대 재생산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

고 일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도 인터넷, 특히 SNS상에서는 별 고민 없이 인터넷 집단을 모방하고 행동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런 행동은 남을 매도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띤다(서울신문b, 2011).

한편 인터넷 상으로 정치인이나 방송인 등 공인들을 다루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사안의 뉴스에 게시된 댓글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생각들이 모여 주축이 되는 논조를 생성, 이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와 동시에 그 흐름에 반대되는 의견은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특정 관점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게 되고, 다수가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압력이 무의식적으로 가해지게 된다. 이는 집단 의사 결정 과정에서 존재하는 동조 압력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현상으로 ‘집단 사고’라고 한다. 실제로 정일권, 김영석(2006)은 온라인 뉴스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댓글 읽기가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댓글에 드러난 의견분포가 여론동향과 일치한다고 믿을수록 댓글을 읽는 행위가 개인 의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극화’는 집단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정 집단에서 공유하는 가치관과 사상 등이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지받으면서 점차 강화되고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익명성과 놀라운 파급력 및 전달성을 특성으로 가진 사이버 공간과 집단 동조, 집단 사고, 집단 극화의 세 가지 현상이 어우러지면서 집단성의 효과가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으로써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세 가지 현상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와 타인에 대한 공격 행위 등의 비적응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상당하며,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

한 상황이므로 사이버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원인 탐색에는 집단성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윤리의식의 결여

성동규 외(2006)는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 윤리의식이나 정보통신윤리의 수준이 사이버 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윤리의식이 강할수록 사이버 폭력의 가해는 감소하고 약할수록 가해 행위 후 느끼는 죄책감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성식(2006)은 사이버 언어폭력을 자주 접하면 학습과정을 통해 폭력 행위를 용인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차별적축이론을 근거로 그러한 태도 요인이 곧 범죄의 원인이 되듯이, 개인이 내면화한 친(親)언어폭력적인 태도요인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주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구나 사이버 공간은 가상적 공간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실재감의 부족으로 상대의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언어폭력이 나쁘지 않은 행동으로 믿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 및 증가 현상 뒤에는 언어폭력 또한 범죄 행위라는 데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매우 낮은 인식률이 피해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윤리의식 결여를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법을 통한 강제보다는 윤리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한 연구도 여럿 존재한다.

(5) 개인적 성향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으로 행위 동기에 대한 개인적 성향을 살펴본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이성식(2006)은 단순한 재미 추구, 열등감 해소와 자기 과시, 일상에서 비롯된 긴장 표출과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사이버 언어

폭력을 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조아라(2009) 등이 사이버 언어폭력 및 악성댓글을 다룬 여러 연구에서 폭력 행위의 이유를 물었을 때 재미 추구와 스트레스 해소 등을 포함한 비슷한 내용의 응답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공격성에서 찾아본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우선 Suler는 인터넷의 속성 자체가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표현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다양한 압력과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표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며(조아라, 2009), 공격성에 의해 양산되는 문제와 인터넷 공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한훈희(2005)는 ‘인간들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이 좌절되거나,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차단되었을 때 공격충동을 갖게 되고, 이 공격충동은 욕구좌절을 일으키게 만든 대상을 향한 공격행동으로 표현된다(이해춘, 2004)’는 개념의 좌절-공격 가설 하에 진행된 온라인 게임에서의 좌절경험에 의한 공격성 연구에서 좌절감이 피험자의 공격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예측변인임을 입증하였다. 이에 다른 여러 학자들도 인터넷 공간과 공격성 사이의 관계 및 그에 따른 문제 양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의 발생에 있어 공격성과 그에 따른 탈억제현상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과 공격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적대적 행위 및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성이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의 원인 중 하나임을 설명하였다(성동규 외, 2006; 정승민, 2007; 주지현, 2007; 권미애, 2008; 황지영, 2008; 조아라, 2009).

2. 악성댓글

1) 악성댓글의 개념

‘댓글(리플라이, 리플)’은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들이 의해 표현된 글과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본 다른 이용자들이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말한다. 보통 인터넷 뉴스 기사 아래 별도로 마련된 댓글 작성 공간이나 이용자들 간에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게시판, 개인 미니홈피나 블로그, SNS를 통해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글의 길이 제한은 없지만 대개 한 두 줄 분량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다.

댓글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득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거대 미디어에서는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주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여 여론화될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가 주장을 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달환, 2007). 즉 댓글은 시민 집단의 능동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이용자 간에 칭찬과 격려를 나눔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심리적 위로와 안정을 얻었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칭찬과 위로, 격려와 도움이 될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을 착한 리플, 이른바 ‘선플’이라고 하며 최근 캠페인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체 의식개선을 바탕으로 그 개념과 긍정적 효과가 널리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선플’보다도 부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악플’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악플(‘악성리플’의 줄임말)’은 ‘악성댓글’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로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유홍식(2010)은 내용 상 조롱·욕설,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 모욕·인신공격, 공갈, 명예훼손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댓글을 악성댓글이라고 보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악성댓글을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게시자 또는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게시하는 글을 의미한다고 했으며(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이성식, 2009에서 재인용), 성윤숙 외(2008)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개인 의견이나 뉴스, 자료 등에 악의적인 욕설이나 비방 댓글을 다는 것을 일컫는다고 했다. 이처럼 악성댓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다룬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과 종합하여, 인터넷 공간에 표현된 타인의 의견에 욕설, 악의적 비방과 조롱, 모욕·인신공격, 헐뜯의 내용을 담아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공격하는 짤막한 형식의 글을 악성댓글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악성댓글의 실태와 영향

한때 국민여배우로 여겨졌던 여성 탤런트는 생전 인터뷰에서 “인터넷 댓글이 무섭다.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동아일보, 2008). 평소 우울증세가 있었던 그는 끊임없는 악성댓글과 루머 및 개인적 상황 등으로 인해 2008년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악성댓글의 문제양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09년 4월, 실명제 확립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반반이지만 이전에 비해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자주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실태와 인터넷 이용자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위험성과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매체의 꾸준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악성댓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채와 관련한 악성댓글과 루머로 고통 받다가 자살한 남성 텔런트와 유명 개그우먼이었지만 사생활 및 처신의 이유로 역시 악성댓글에 시달려 한동안 사회 활동에서 철수했던 그의 부인의 사례는 급기야 포털 내부적으로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서비스를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악성댓글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한 스포츠 아나운서의 자살 예고로 들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했던 스포츠 선수와의 열애 사실과 그에 따른 고통, 그리고 자살 예고가 오히려 논란과 함께 ‘그냥 죽지 그랬냐’는 식의 수많은 악성댓글 공격을 초래하자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동아일보, 2011).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로 상대 스포츠선수에게마저 수많은 악성댓글이 가해져 다른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한동안 귀추가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뮤지컬배우로 전업한 여가수는 한참 인기를 구가하던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의 출연과 더불어 사생활 문제로 인하여 욕설과 인격모독조의 조롱이 담긴 악성댓글 공격을 받았으며, 담당 PD와의 ‘관계’에 대한 허위 루머가 나돌아 곤혹을 겪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11). 그밖에 성형과 작품 표절시비 등으로 ‘자살하라’는 내용의 악성댓글을 받고 우울 증세를 겪은 방송인이 많음을 여러 인터넷 뉴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 방송인에 대한 허위소문 유포와 악성댓글 사용을 선동하는 ‘○○○닷컴’이라는 형식의 홈페이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서 악성댓글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발생은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다이어트로 몰라보게 달라진 한 여학생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달린 인신 공격적 악성댓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악성댓글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 사례로 매년 언급되고 있다. 키가 작은 남자들을 ‘루저’라고 표현한 여대생은 그 사건 이후로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신상정보가 유출되고, 시시콜콜한 사생활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었으며 악성댓글을 통해 욕설과 모욕, 협박 등 온갖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당한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 발언이 알려진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인터넷에는 그의 근황을 묻는 질문과 함께 ‘인터넷에서 해고됐다’는 식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생활이 떠돌고 있으며, 여전히 그 사건을 두고 공격적인 언행을 구사하는 네티즌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었던 김상병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미니홈피를 통해 신상정보가 유출되었고, 심지어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사진이 범인이라고 지목되어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사람들로 부터 많은 악성댓글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이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죽고 싶다’고까지 말했지만(조선닷컴, 2011), 정신적 피해만 고스란히 안은 채 사건은 유아무야 마무리되었다. 이외에도 일반인의 피해 사례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신고 되지 않았거나 여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무수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성댓글의 대처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써 악성댓글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포털과 언론사, UCC 사이트에서 작성된 악성댓글 분석 과정을 거쳐 공개된 사이버 폭력지수에 의하면 전체 댓글의 11.9%가 악성댓글이라고 하였다. 이는 무려 10개의 댓글 중 적어도 1개는 타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 욕설 등의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며, 여러 인

터넷 게시판에서 하루에 작성되는 댓글 전체 개수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악성댓글이 작성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악성댓글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욕설이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조롱과 비난이 각각 28.1%, 26.9%로 악성댓글의 대부분을 나타내었다. 같은 해 동아일보(2009a)에서 댓글 32만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댓글 조사 결과도 전체 댓글의 14.3%가 악성댓글로 판별되었으며, 욕설과 헐뜯 내용의 악성댓글이 65.3%로 사이버 폭력지수 연구에서 발표한 바와 결과가 같아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악성댓글 사용 실태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악성댓글 사용 실태의 위험성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많은 악성댓글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악성댓글을 단 사람 가운데 상위 5%가 점유율 44.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0월 5일 네이버에 오른 ‘상습악질 인터넷 악플러 구속 수사’라는 기사에는 모두 177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35.6%가 악성댓글이었고 이 가운데 상위 5%가 생산한 악성댓글은 무려 63.8%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성별을 불문하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룰 줄 아는 모든 연령층이 악성댓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 사회적 판단이 미숙한 만3-9세의 아동 중 무려 2,920,000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는 미처 조사되지 않은 어린 잠재적 악성댓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함을 짐작하게 하여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 헐뜯·공갈, 사이버 스토킹 등의 인신공격 성격을 띠는 사이버 폭력 범죄자는 2007년 현재 하루 평균 20건씩 검거되고 있다(서울신문, 2011a).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가 연간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3) 악성댓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모든 학문 분야를 통틀어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댓글을 다룬 연구는 수적으로도 부족할뿐더러 내용면에서도 아직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댓글을 주제로 삼은 연구는 규제를 위한 법제화 및 기술적 장치 도입이나 미디어를 포함한 사회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다.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본 사이버 언어폭력, 혹은 악성댓글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으나, 행위 유형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개념인 '사이버 비행'의 관점에서 이를 다룬 연구가 수행 되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라민오(2001), 전숙영 외(2005), 손진희, 손은령(2007) 등은 사이버 비행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시도해왔으며,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 증상과 사이버 비행 경험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전숙영 외(2005)와 손진희, 손은령(2007)은 인터넷 중독과 더불어 가정환경 변인과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의 상관을 확인했으며, 한종욱(2001)과 심진숙(2008)은 가족응집력을 포함한 가족 유대관계 및 애착의 수준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을 파악하고 이를 사이버 비행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한편 개인의 심리적 성향과 사이버 비행의 관계를 다루 두 요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김태균(2007)은 우울, 폭력성 및 낮은 자존감의 개인위험요인과 비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성식(2009)은 초등학생의 사이버 비행에 있어 일반 부모·친구와의 갈등 등을 포함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 사용시간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위 선행연구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이버 폭력 및 범죄 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심리적 특성과 사이버 언어폭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 원인 및 악성댓글의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향'을 살펴본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악성댓글 연구의 물꼬를 트고 있다. 성동규 외(2006), 이성식(2006, 2009), 이정기, 우형진(2010)은 사이버 폭력의 유발요인으로써 개인의 의식과 피해 경험, 성향을 변인으로 사이버 언어폭력과 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으며, 김재휘, 김연정(2004), 권미애(2008), 주지현(2008), 조아라(2009, 2010), 박현숙(2010)은 개인이 지각한 환경적 특성(컴퓨터 이용 정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유대 관계 등)과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공격성, 충동성)이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을 분석함으로써 폭력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연구에서 역설하였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 이용에 따른 역기능적 문제 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언어폭력, 즉 악성댓글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을 기저에 둔 '악성댓글'을 중심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언어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관심은 자아존중감이 인간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이고 정신 건강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최해림, 1999).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Rosenberg(1985)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이 지각한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정도라고 설명하였으며, Coopersmith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써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유능하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조운주, 2003). 또한 Brown과 Mankowski(1993)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보고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개인들이 일상적인 생활 사건들을 직면할 때 그 결정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양현정, 2002).

학계에서는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애정과 많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수용 및 존중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낀다. 또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분노를 자주 느끼고 쉽게 짜증을 내며 주변 상황과 갈등을 자주 경험하는 모습을 보인다(Rosenberg, 1985).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긍정적 자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외부 자극을 더 위

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높은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결과가 주장된 바 있다(Toch, 1993; Vogel & Brown, 1983; 김한주, 2010에서 재인용).

이는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다룬 다른 연구에서도 지지되는 것으로, 서민재(2009)는 공격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다른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인 전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두 변인 사이에 부적 상관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김한주(2010)는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상관을 살펴본 자신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우회적 공격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한 기존 연구들(Donnellan et al., 2005; Paulhus, Robins, Trzesniewski, & Tracy, 2004; Smalley & Stake, 1996)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이버 언어폭력이 개인의 공격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낮은 자아존중감 또한 사이버 언어폭력, 즉 악성댓글 사용 정도와 부적 상관을 이루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연구자들은 공격성을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일탈·비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일상생활에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성취부족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청소년은 폭력 등의 행위로 열등감을 해소하고 주목받으려는 경향이 있다(Kaplan, 1980). 이와 유사하게 방영자(1997)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공격성, 신체적 능력, 대담성 등을 행함으로써 사회에서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행을 평가 절하된 자신의 적응적, 방어적 반응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허정강(2007)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일탈행동 사이에 부적 상관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 학업 성취도, 진로 결정능력, 대인 관계, 가정환경, 부정적 사고 등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 및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때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새로운 양상의 역기능적 문제 행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문제 행동의 발현 및 증가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자 이러한 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 연구 또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일탈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대한 연구이다(김재휘, 김지호, 2002). Young은 인터넷 중독자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으며(Young, 1999a; 위지희, 채규만, 2004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김종범(1999)과 위지희, 채규만(2004), 황정미(2004) 등이 인터넷 중독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검증한 바 있다. 또한 사이버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상관 연구에서 Johnson(2009)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송창현(2007) 역시 사이버 일탈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사이버 폭력 중 하나의 유형인 사이버 언어폭력, 즉 악성댓글의 사용에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 불안과 우울

불안과 우울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 행동을 설명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심리적 특성이다. 현대인이라면 정도 차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겪고 있는 질환인 불안과 우울은 일상에서 일반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큰 심리적 부적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이란 기대되거나 임박한 위협에 대한 표시이며 가장 공통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영구히 지속되어 온 인간의 반응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기에도 흔히 나타나는 감정 상태이다(최진숙, 조수철, 1990). 김희은(2002)은 불안이 낮을 때에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반대로 불안이 높을 때에는 대인관계 두려움이나 일상적인 문제 장면에서 부적절한 행동,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작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인한 수면 곤란, 피로감, 놀람 등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우울’은 앞서 언급했듯이 건강한 사람들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감기와도 같은 흔한 정신적 질환이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며 자살에 이르게도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심리적 장애이기도 하다. Beck(1976)은 우울을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 상태라고 했으며, 우울은 피곤함과 수면부족, 과식 혹은 식욕상실, 무기력감, 주의집중력 감소, 사회적 철회, 흥미 상실과 활동 감소,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주요 특징으로 가진다. 최근에는 우울의 발생 시점과 관련, 젊은 세대가 그 전 세대보다 더 높은 우울증 빈도를 나타내고 우울을 앓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Burke & Regier, 1996; 이은선, 2006에서 재인용).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우울은 정서적 억압 등의 내현적 문제와 바깥으로 표출되는 외현적 문제 증상 발현을 바탕으로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김정미, 2010).

이때 불안과 우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써 두 심리

적 요인을 문제 행동의 측면 중 공격성과 더불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먼저 불안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파괴적 행동이나 악의를 품은 발언 등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형태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김지연, 2007). 심리학적 관점에서 비행의 원인을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대부분이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비행 청소년들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안정을 얻기 위하여 반항적 행동이나 파괴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홍승혜, 1999). 또한 인터넷 문제행동과 불안을 연관 지었을 때 인터넷 중독군에서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불안이 높다는 결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정경란, 2001; 이혜린, 2008에서 재인용), 인터넷 게임 중독군에서도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일반적군 순으로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불안이 높다는 결과가 증명된 바 있다(권순희, 2010).

한편 우울과 공격성 간에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서민재(2009)는 공격 유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공격 행위를 가하는 전위 공격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자기초점적 사고(self-focused thought), 즉 반추와 같이 유발 사건을 경험한 뒤 곧바로 반응을 하기 보다는 많은 내적 작업 후에 부적절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인데(Miller et al., 2003), 자신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정신건강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높은 전위 공격성 집단에서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권순희, 2010)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울과 공격성을 다룬 연구 중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를 다룬 Espelage와 Swearer(2003)는 학교 폭력 연구에서 우울이 오로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Austin & Joseph(1996)과 Slee(1995)의 말을 빌려 또래를 괴롭힌 남녀 가해 학생들에게서도 임상적으로 상승된 우울 수준이 관찰되었다

고 설명했다. 나아가 가해와 피해 모두 경험한 학생의 경우 가해만을 경험한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의 우울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울은 불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양상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높은 우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정경란, 2001; 조춘범·송아영·이순호, 2007; Gunn, 1988; Young, 1999; Young & Rogers, 1998; 이혜린, 2008 재인용)이 다수 있는데, 이혜린(2008)은 우울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기 및 자존감 저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에게서도 해당되며, 정호선과 박경(2009)의 연구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일탈행동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성식(2004b)은 연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에 우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격 및 폭력 행위가 모두 불안 및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사용 경험도 불안 및 우울과 유의한 관계성을 띠 것이라는 데 대한 근거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사용 경험과 불안·우울의 부정적 정서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3)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변영인(1999)은 청소년기는 그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자아를 탐색해 나가는 시기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건강한 개인과 가족관계를 위해 가족생활 발달단계상 가족 기능의 점검과 가정 내에서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며,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척도가 가족 체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변인이라고 하였다.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 즉 가족원 간의 친밀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로 가족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Olson 등(1985)은 응집성이 적절한 수준일 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의 정도가 개인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면서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개인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이상준, 2003). 한편 가족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적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가족이 규칙을 세워서 유지하고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가족 체계 내 능력을 의미하는데, 안정과 변화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 체계의 힘을 나타내는 자기 주장성, 통제나 훈육방식, 역할관계 및 가족관계 등이 그 지표가 된다(김희연, 2006). 처음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개념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두 요인이 중간 정도의 수준일 때 가족 기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추후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으며(Olson, Lavee, 1991), 이는 최근의 연구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학술연구논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한 연구논문을 검색해보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개인의 정서 및 공격성, 반사회적 성향 등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응집성·적응성 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을 바탕으로 한 또래 관계에서의 폭력 행위, 인터넷 공간에서의 타인을 향한 공격 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오랜 시간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온 상황에서 공격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설명이 요구되었고, 이에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 내에서 관찰되는 기능적 특성들이 연구 주제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격성과 가족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공격 행동과 가족응집력의 결여 사이의 관련성에 상당히 지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Gorman-Smith, Tolan, Zelli, & Huesmann, 1996; Espelage, Swearer, 2003에서 재인용). Bowers 등(1994)과 Jester 등(2005)은 가족응집력의 결여, 또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낮은 수준의 지지와 애정, 공유된 활동이 아동의 높은 공격성을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Yu, Gamble, 2008). Espelage와 Swearer(2003)는 가정 내에서 폭력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공격 행위를 기능적 수단으로써 중시 여기는 갈등이 많은 가족에게는 폭력 행위의 유용함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아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는 공격성에 있어 인지적 영향력을 강조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공격성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공격 행동은 부모나 또래 친구에 대한 모방 또는 다른 매체로부터의 모델로부터 관찰 학습되고, 이와 같은 모델링 과정 뿐 아니라 보상과 처벌 체계에 의해서 공격 행동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허순향, 2005). 한편 국내에서는 김영희 등(2008)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낮은 가족응집성이 가족관계와 우울 및 비행에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라는 바를 검증했으며, 정안숙(2003)은 갈등이 적은 가정과 지지적-활동적인 가정처럼 스트레스가 적고 가족이 응집적이며 가족 간의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아동의 공격성, 그리고 비행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가족 기능과 공격성 및 폭력을 포함한 비행 행동에 대한 관심 속에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행동과 가족 기능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손진희, 손은령(2007)은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인터넷관련 비행은 낮아진다고 했으며, 이성식(2008)은 부모와의 유대가 낮은 청소년이 악성댓글 가해 경험이 많고, 동 저자의 2009년 연구에서 부모와 긴장 및 갈등관계에 있는 청소년이 잦은 악성댓글을 경험함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寺戶(2009) 역시 사이버 폭력(ネットいじめ, 네티지메) 가해 경험과 부모-자녀 간의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신뢰도를 측정 한 연구에서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낮은 유대관계와 신뢰도를 가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이 타인에 대한 공격 행위인 악성댓글의 사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에 따라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4. 연구 문제 및 가설

앞서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용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나아가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연구문제 1.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용 실태(인터넷 사용 시간, 악성댓글 사용 빈도, 작성한 악성댓글의 내용, 악성댓글 사용 공간, 악성댓글 사용 이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여부와 당시 정서 상태 및 대처 행동)는 어떠한가?

가설 1-1. 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1-2. 재학 연령이 낮을수록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1-3.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가설 1-4.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또한 많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수준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자아존중감, 우울·불안,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은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2.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불안은 정
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3.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은 정
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4.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은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아동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까지 남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연구 대상의 솔직한 응답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온라인의 경우, 웹에서 이루어지는 설문 방식을 사용하여 카페와 클럽, 커뮤니티 웹사이트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위에 제시한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다. 한편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설문조사는 초등·중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거나 충분한 설문 요지 전달 후에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의 배부와 수거를 부탁함으로써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된 문항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은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2. 측정 도구

1) 악성댓글 사용 경험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타 척도와는 달리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 된 ‘악성댓글 사용 경험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악성댓글을 다룬 몇

몇 선행 연구에서도 악성댓글의 사용 경험과 관련,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직접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되,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새로이 추가하여 직접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설문지는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 전 소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신뢰도를 검증한 뒤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질문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최근 3개월 동안의 응답자의 인터넷 사용 시간, 악성댓글 사용 경험 여부와 횟수, 주요 악성댓글 사용 매체(인터넷 게시판, 채팅 및 메신저, 이메일 등)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2)에서 분류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과 본 연구에서 정의한 악성댓글의 개념을 바탕으로 각 가해 유형(욕설, 비방/비하/명예훼손,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 인신공격/협박/위협, 게시판 도배, 성희롱)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악성댓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실제 학생들이 스스로의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보고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악성댓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설문 진행에 필요한 이해를 도왔다. 설문지의 Cronbach's α 는 .83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악성댓글 사용 경험을 묻는 문항 외에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이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피해를 겪었을 때의 정서 상태와 대처 행동을 묻는 질문을 포함시켜 악성댓글 사용 수준과의 관계 또한 살펴보았다.

2)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지각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개발 이래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이 Rosenberg의 척도를 번안해

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주경(1998)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문항 5개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정말 아니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번과 5번, 8번, 9번, 10번은 역채점한다. 획득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3) 소아·청소년 불안척도(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소아-청소년 불안척도(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를 사용하였다.

RCMAS는 Taylor가 1951년에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발현 불안 측정도구(manifest anxiety scale)를 전신으로 한다. 발현 불안은 일종의 기질적(temperament)인 성격의 불안으로, 일생동안 유지되는 불안의 유형인 특성 불안(trait anxiety)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차원에서 연구되었다(최진숙, 조수철, 1990) 이를 바탕으로 Castenada 등(1956)이 아동용 척도(Child's Manifest Anxiety Scale: CMAS)를 개발하였으며, 1978년에 Reynolds 등이 이론적인 측면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만든 것이 바로 RCMAS이다.

국내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에 의해 번안되어 타당화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결과가 논의된 바 있으나, 그 후 Perrin & Last가 RCMAS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및 주요 우울장애(MDD)와 중첩된다고 밝혀 불안구성에 대한 새로운 요인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김진희, 2010).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박혜연 외(2005) 여러 학자들이 새롭게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37개의 문항 중 9개의 허구문항을 제외한 2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의 각 문항은 응답자가 ‘예(1점)’, ‘아니오(0점)’의 두 가지 항목으로 대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으로 측정되었다.

4) 아동 우울 검사(Child's Depression Inventory: CDI)

아동 우울 검사(Child's Depression Inventory: CDI)는 성인용 우울 척도(BDI)의 아동용 수정판으로 Kovacs(1985)에 의해 개발되었다. 한국판으로는 조수철, 이영식(1990)이 번안 및 표준화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가 8-13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나, 김은경 외(2005), 김정미(2010), 이주영 외(2002)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는 응답자가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자가 보고식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우울 정도에 따른 세 가지 서술문이 기술되어 응답자는 그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0점에서 2점까지의 배점이 이뤄지며, 27개의 문항 중 2, 5, 7, 8, 10, 11, 13, 15, 16, 18, 21, 24, 25번 문항은 역채점한다. 총점이 클수록 우울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한편 자살과 관련된 9번 문항은 아동 및 청소년 임상집단에서조차 경험한다고 보고되는 경우가 적어 아동의 우울증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결측값만 증가시키므로 대부분의 CDI 연구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Weiss et al., 1991; 김은경 외, 2005 재인용).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9번 문항을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5) 가족적응성과 응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III: FACES-III)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Olson과 Portner, Lavee(1985)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III)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귀연(1993)이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한 것을 다시 김미애(1997)가 아동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하여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되, 문항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자가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어서 사용하였다.

FACES-III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20문항 중 10개의 홀수 문항이 가족응집성을 나타내고, 10개의 짝수문항이 가족적응성을 나타낸다.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을 묻는 척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각 점수는 10점에서 5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적응성의 C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가족 응집성의 Cronbach’s α 는 .88로 측정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dows 17.0을 사용,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수준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다.

둘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악성댓글 사용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주요 변인들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다.

넷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한다.

다섯째,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그 집단 간에 변인으로 설정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ANOVA)과 독립 K-표본 비모수 검정(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다.

여섯째, 악성댓글의 사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

IV 연구 결과

1.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용 실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였으며, 두 문항 이상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한 척도에서 연속으로 같은 번호에 응답하는 등의 무성의하게 기록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학생들에게 배부했던 총 800부의 설문지 중 678부를 수거하였으며, 온라인은 실시된 설문 38부 중 33부를 수거, 총 7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는 351명(49.4%), 여자는 360명(50.6%)의 성별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재학 연령에 따라 초등학교생이 215명(30.2%), 중학생이 246명(34.6%), 고등학생이 250명(35.2%)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 <표 2>에 명시하였다.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백분율(%)
설문 형태	온라인	33	4.6
	오프라인	678	95.4
성별	남자	351	49.4
	여자	360	50.6
재학 연령	초등학교	215	30.2
	중학교	246	34.6
	고등학교	250	35.2
	전체	711	100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용 실태(인터넷 사용 시간, 사용한 악성댓글의 내용과 그 빈도, 악성댓글 사용 매체, 악성댓글 사용 이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당시의 정서 상태와 대처 행동) 파악을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 목적에 따른 통계 분석을 위하여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은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악성댓글 사용 내용과 횟수를 묻는 문항의 응답 내용에 의해 악성댓글 미(未)사용 집단, 저(低)사용 집단, 고(高)사용 집단으로 분류된다.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문항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집단에는 0점 내지 1점을 획득한 응답자들이 해당된다. 저사용 집단의 경우 2점에서 11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한 응답자들을 포함하며, 고사용 집단은 12점 이상을 획득하여 악성댓글을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아동과 청소년이 해당된다.

1)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악성댓글 사용 수준과 성별 및 재학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집단은 남자의 36.5%, 여자의 57.8%로 확인되었으며, 남자의 54.4%, 여자의 39.4%가 저사용집단, 남자의 9.1%, 여자의 2.8%가 고사용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 결과 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악성댓글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고사용집단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에서 명시하였다.

<표 3>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

성별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χ^2
	N	%	N	%	N	%	
남자 (N=351)	128	(36.5)	191	(54.4)	32	(9.1)	37.674***
여자 (N=360)	208	(57.8)	142	(39.4)	10	(2.8)	
전체 (N=711)	336	(47.3)	333	(46.8)	42	(5.9)	

*** $p < .001$

다음으로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5.6%, 중학생의 44.3%, 고등학생의 51.6%가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의 48.4%, 중학생의 48.8%, 고등학생의 43.6%가 악성댓글 저사용집단으로 파악되었으며, 고사용집단의 경우 초등학생의 6%, 중학생의 6.9%, 고등학생의 4.8%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의 값이 3.389로 $p < .05$ 수준에서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495$), 이에 따라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령층이 낮을수록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자세한 통계분석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표 4>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

재학 연령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X ²
	N	%	N	%	N	%	
초등학생 (N=215)	98	(45.6)	104	(48.4)	13	(6.0)	3.389 (p=.495)
중학생 (N=246)	109	(44.3)	120	(48.8)	17	(6.9)	
고등학생 (N=250)	129	(51.6)	109	(43.6)	12	(4.8)	
전체 (N=711)	336	(47.3)	333	(46.8)	42	(5.9)	

2) 악성댓글 사용 수준과 인터넷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집단의 경우 하루 1시간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의 경우 하루에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 집단 내 인터넷 사용 비율을 살펴보니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미사용집단)보다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이 장시간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대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χ^2 의 값은 35.821로 산출되었으며 $p < .001$ 의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사용 시간과 악성댓글 사용 수준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p < .001$ 의 수준에서 .246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

에 비해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보다 상세한 통계량은 <표 5>에서 제시하였다.

<표 5>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

인터넷 사용 시간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전체	χ^2
1시간미만	143 (42.6)	87 (26.1)	8 (19.0)	238 (33.5)	35.821***
1-2시간	122 (36.3)	145 (43.5)	18 (42.9)	285 (40.1)	
2-3시간	51 (15.2)	68 (20.4)	6 (14.3)	125 (17.6)	
3-4시간	11 (3.3)	18 (5.4)	5 (11.9)	34 (4.8)	
4시간 이상	9 (2.7)	15 (4.5)	5 (11.9)	29 (4.1)	

*** $p < .001$

3) 성별 ·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매체

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 공간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 중 어떤 매체에서 악성댓글을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악성댓글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의견(35.4%)을 제외하고 ‘게임/오락/성인사이트(20.8%)’에서 악성댓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포털 뉴스(12.9%)’와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12.8%)’도 2, 3순위를 차지하며 악성댓글을 주로 작성하는 곳으로 언급되었다.

성별로 악성댓글 작성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36.2%가 ‘게임/

오락/성인사이트'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는 15.3%가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에서, 그리고 14.7%가 '블로그/미니홈피'에서 악성댓글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이 악성댓글을 주로 사용하는 매체 현황을 재학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각 연령층 모두 '게임/오락/성인사이트'에서 악성댓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초등학생은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14.4%)',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5.9%와 12.8%의 비율로 포털뉴스에서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한다고 분석되었다. 악성댓글 사용 매체 현황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표 7>에 명시하였다.

<표 6>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매체 현황

단위 : 명(%)

악성댓글 사용 매체	남자	여자	전체	χ^2
포털뉴스	47(13.4)	45(12.5)	92(12.9)	
언론/방송사/공공기관	3(0.9)	5(1.4)	8(1.1)	
기업/쇼핑몰	2(0.6)	5(1.4)	7(1.0)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	36(10.3)	55(15.3)	91(12.8)	
블로그/미니홈피	25(7.1)	53(14.7)	78(11.0)	106.789***
SNS	12(3.4)	15(4.2)	27(3.8)	
게임/오락/성인사이트	127(36.2)	21(5.8)	148(20.8)	
동영상 관련 사이트	3(0.9)	5(1.4)	8(1.1)	
악성댓글 사용 경험 없음	96(27.4)	156(43.3)	252(35.4)	

*** $p < .001$

<표 7>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매체 현황

단위 : 명(%)

악성댓글 사용 매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포털뉴스	21(9.8)	39(15.9)	32(12.8)	92(12.9)	
언론/방송사/공공기관	2(0.9)	3(1.2)	3(1.2)	8(1.1)	
기업/쇼핑몰	2(0.9)	2(0.8)	3(1.2)	7(1.0)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	31(14.4)	29(11.8)	31(12.4)	91(12.8)	
블로그/미니홈피	22(10.2)	29(11.8)	27(10.8)	78(11.0)	29.346 ($p=.022$)
SNS	1(0.5)	13(5.3)	13(5.2)	27(3.8)	
게임/오락/성인사이트	62(28.8)	50(20.3)	36(14.4)	148(20.8)	
동영상 관련 사이트	1(0.5)	3(1.2)	4(1.6)	8(1.1)	
악성댓글 사용경험 없음	73(34.0)	78(31.7)	101(40.4)	252(35.4)	

*** $p < .05$

4) 성별 ·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이유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전체 연구 대상자의 20.0%가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의견이 14.8%로 다음 순위에 해당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용 이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21.7%, 여자의 18.3%가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악성댓글을 작성한다고 하여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한편 재학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순위와 2순위로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를 지목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16.3%)’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음(15.8%)’을 선택하였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악성댓글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초등학생이 15.8%나 되는 점과 더불어 전체 연구대상군에서 ‘심심해서 재미로(9.3%)’, ‘특별한 이유 없음(9.1%)’의 항목이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은 악성댓글이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 기타 의견으로 ‘상대방이 먼저 써서(화가 나서)’, ‘남들도 쓰니까’와 함께 ‘친구에게 장난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신뢰, 친밀감의 표시로’ 등이 있었으며, 성별과 재학 연령별로 살펴본 악성댓글 사용 이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이유

악성댓글 작성 이유	남자		여자		전체		X ²
	N	%	N	%	N	%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	76	(21.7)	66	(18.3)	142	(20.0)	27.010***
스트레스 해소	11	(3.1)	12	(3.3)	23	(3.2)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주목 획득	10	(2.8)	10	(2.8)	20	(2.8)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66	(18.8)	39	(10.8)	105	(14.8)	
심심해서 재미로	37	(10.5)	29	(8.1)	66	(9.3)	
특별한 이유 없음	30	(8.5)	35	(9.7)	65	(9.1)	
기타	25	(7.1)	13	(3.6)	38	(5.3)	
악성댓글 사용 경험 없음	96	(27.4)	156	43.3	252	(35.4)	

*** p < .001

<표 9>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이유

단위 : 명(%)

악성댓글 작성 이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	23(10.7)	53(21.5)	66(26.4)	142(20.0)	48.969***
스트레스 해소	6(2.8)	11(4.5)	6(2.4)	23(3.2)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주목 획득	6(2.8)	10(4.1)	4(1.6)	20(2.8)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35(16.3)	37(15.0)	33(13.2)	105(14.8)	
심심해서 재미로	19(8.8)	25(10.2)	22(8.8)	66(9.3)	
특별한 이유 없음	34(15.8)	18(7.3)	13(5.2)	65(9.1)	
기타	19(8.8)	14(5.7)	5(2.0)	38(5.3)	
악성댓글 사용 경험 없음	73(34.0)	78(31.7)	101(40.4)	252(35.4)	

*** $p < .001$

5)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시 정서 상태와 대처 행동

다음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여부 및 경험 당시의 정서 상태, 대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표 11>, <표 12>에 명시하였다.

먼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미사용집단의 25.6%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으며, 74.4%가 피해를 겪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미사용집단과는 달리 저사용집단의 경우 60.4%가 피해 경험이 있으며 39.6%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고사용집단은 전체의 69.0%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31.0%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일수

록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또한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또한 많을 것이라는 가설 1-4는 지지되었다.

<표 10>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경험 여부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전체	χ^2
경험 있음 (N=316)	86(25.6)	201(60.4)	29(69.0)	316(44.4)	92.808***
경험 없음 (N=395)	250(74.4)	132(39.6)	13(31.0)	395(55.6)	

 $p < .001$

이때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시의 정서 상태 또한 알아보았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악성댓글을 사용한 전체 집단에서 ‘화가 났다’는 의견이 2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의 경우 각각 12.8%, 28.2%의 응답자가 1순위로 ‘화가 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저사용집단의 경우 ‘화가 났다’는 의견에 이어 2순위로 11.4%의 응답자가 ‘당한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고사용집단도 21.4%의 응답자가 화가 났고, 16.7%의 응답자가 당한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고사용집단 중 23.8%의 사람들이 ‘기타’ 의견으로 ‘아무렇지도 않았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었으며, 그 외에 ‘(악성댓글을 사용한 상대방을)실컷 때리고 싶었다’는 의견과 ‘어이 없었다’, ‘웃겼다’는 응답을 하였다.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시 정서 상태

단위 : 명(%)

정서 상태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전체	χ^2
슬프고 우울함	12(3.6)	17(5.1)	2(4.8)	31(4.4)	117.190***
화가 남	43(12.8)	94(28.2)	9(21.4)	146(20.5)	
불안하고 초조	4(1.2)	8(2.4)	0(0.0)	12(1.7)	
당한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음	7(2.1)	38(11.4)	7(16.7)	52(7.3)	
자신감 상실	7(2.1)	5(1.5)	1(2.4)	13(1.8)	
대인관계 위축	3(0.9)	4(1.2)	0(0.0)	7(1.0)	
기타	10(3.0)	35(10.5)	10(23.8)	55(7.7)	
피해경험 없음	250(74.4)	132(39.6)	13(31.0)	395(55.6)	

*** $p < .001$

나아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시 아동과 청소년의 대처 행동을 알아보았다. 우선 전체 연구 대상에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가장 많은 수가 ‘그냥 무시했다(24.5%)’고 응답하였다. 이를 다시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각 집단별로 분석해 보았더니 각각 15.5%와 33.6%의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 응답자가 1순위로 무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저사용집단의 경우 ‘내가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플을 달았다’는 응답이 14.7%로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고사용집단의 경우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악성댓글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무시했다는 응답이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했다’, ‘혼자 짜증낸 후 참았다’, ‘계속 생각하며 우울해 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12>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시 대처 행동

단위 : 명(%)

대처 행동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전체	χ^2
당한 것처럼 악성댓글 사용	6(1.8)	49(14.7)	13(31.0)	68(9.6)	120.556***
타인에게 화풀이	4(1.2)	6(1.8)	0(0.0)	10(1.4)	
고민 상담	11(3.3)	12(3.6)	3(7.1)	26(3.7)	
다른 일에 몰두	7(2.1)	9(2.7)	1(2.4)	17(2.4)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함	2(0.6)	6(1.8)	1(2.4)	9(1.3)	
그냥 무시함	52(15.5)	112(33.6)	10(23.8)	174(24.5)	
기타	4(1.2)	7(2.1)	1(2.4)	12(1.7)	
피해경험 없음	250(74.4)	132(39.6)	13(31.0)	395(55.6)	

*** $p < .001$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 차이 검증

인터넷 이용 시간과 자아존중감, 불안과 우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주요 변인들 간에 성별에 의한 평균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사용 시간과 가족응집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인터넷 사용 시간: $t=2.424$, $p<.05$, 가족응집성: $t=-2.389$, $p<.05$).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불안·우울, 가족적응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자아존중감: $t=-.280$, $p=.779$, 불안: $t=-1.218$, $p=.224$, 우울: $t=1.958$, $p=.051$, 가족적응성: $t=-1.732$, $p=.084$).

<표 1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차이

변 인	남자	여자	t	p
	M(SD)	M(SD)		
인터넷 사용시간	2.15(1.066)	1.97(.992)	2.424*	.016
자아존중감	29.29(4.549)	29.39(4.795)	-.280	.779
불안	9.57(5.615)	10.09(5.683)	-1.218	.224
우울	12.32(6.402)	11.37(6.563)	1.958	.051
가족응집성	34.64(7.125)	35.95(7.475)	-2.389*	.017
가족적응성	32.97(6.283)	33.81(6.634)	-1.732	.084

* $p < .05$

3. 악성댓글 사용 및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 간의 상관 분석

악성댓글의 사용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자아존중감, 불안·우울,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4>에 명시하였다.

악성댓글 사용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r=-.172$,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댓글과 불안($r=.273$, $p<.001$)·우울($r=.293$, $p<.001$)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악성댓글과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은 부적 상관($r=-.202$, $p<.001$)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자아존중감과 불안($r=-.518, p<.001$)·우울($r=-.595, p<.001$)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성($r=.356, p<.001$)과 가족적응성($r=.304, p<.001$)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불안과 우울은 $.661(p<.001)$ 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과 가족응집성($r=-.264, p<.001$), 가족적응성($r=-.181, p .001$)은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우울 역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의 상관에서 각각 $-.388, -.325(p<.001)$ 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p<.001$ 의 수준에서 $.768$ 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악성댓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악성댓글	1					
자아존중감	-.172***	1				
불안	.273***	-.518***	1			
우울	.293***	-.595***	.661***	1		
가족응집성	-.202***	.356***	-.264***	-.388***	1	
가족적응성	-.202***	.304***	-.181***	-.325***	.768***	1

*** $p < .001$

4.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살펴볼 심리사회적 특성은 자아존중감과 불안·우울,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이며, 각 변인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과 불안,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의 경우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세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실시하였다. 한편 동질성 검정에서 .025의 낮은 유의확률이 산출된 우울의 경우 독립 K-표본 비모수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사용하였으며, Bonferroni Correction 방법을 적용,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여 각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30.07점으로 나타났으며, 저사용집단은 28.85점, 고사용집단은 27.45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은 부적의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이어 Scheffe의 사후검정을 통한 집단 간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악성댓글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 미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

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는 각각 1.22와 2.61의 통계치를 가지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p = .003$),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는 사후검정 결과 1.39의 값을 가지며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나왔다($p = .183$). 분석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5>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심리사회적 특성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F	Sig.
	M(SD)	M(SD)	M(SD)		
자아존중감	30.07 (4.745)	28.85 (4.479)	27.45 (4.655)	9.558	.000

2)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불안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불안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집단의 경우 불안의 평균 점수는 8.30점으로 나타났으며, 저사용집단은 10.95점, 고사용집단은 13.2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불안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정을 통한 집단 간 불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악성댓글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 간의 차이는 -2.65, 미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의 차이는 -4.94의 평균차를 나타내어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의 불안 수준은 -2.29의 평균차가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p = .038$). 따라서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불안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자세한 결과 수치는 <표 16>에서 제시하였다.

<표 16>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불안

심리사회적 특성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F	Sig.
	M(SD)	M(SD)	M(SD)		
불안	8.30 (5.409)	10.95 (5.475)	13.24 (5.485)	28.571	.000

3)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우울

우울의 경우, 미사용집단의 우울 평균 점수는 9.93점, 저사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13.26점, 고사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15.81점으로 계산되었으며,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질성 검정 문제로 ANOVA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독립 K-표본 비모수검정(Kruskal-Wallis test)을 사용하여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된 집단 간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울 척도에서 획득한 점수의 총합이 클수록 1순위를 할당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우울 순위의 평균은 356.00이며, 표준편차는 205.139로 산출되었다. 이때 악성댓글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의 평균 순위는 각각 418.00, 308.21, 238.88로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2)=62.45, p<.001$). 따라서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2-3은 지지되었다.

한편 사후검정을 위해 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한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악성댓글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U=38577.50, r=-.27$), 미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U=3591.00, r=-.27$) 간의 차이는 $p<.0167$ 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저사용집단과 고사용

집단($U=5539.00$, $r=-.11$) 간의 차이는 $p>.0167$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17>과 <표 18>에 명시하였다.

<표 17>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우울

심리사회적 특성	Mean Rank			H	Sig.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우울	418.00	308.21	238.88	62.45	.000***

*** $p<.001$

<표 18>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우울의 사후검정 결과

	U	Z	r	Sig.
미사용집단 - 저사용집단	38577.50	-6.957	-.27	.000*
미사용집단 - 고사용집단	3591.00	-5.199	-.27	.000*
저사용집단 - 고사용집단	5539.00	-2.199	-.11	.028

* $p<.0167$

4)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먼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가족응집성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집단의 경우 가족응집성의 평균 점수는 36.53점으로 나타났으며, 저사용집단은 34.47점, 고사용집단은 32.0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악성댓글

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족응집성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적응성의 경우 역시 가족응집성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미사용집단의 가족적응성 평균 점수는 34.54점, 저사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32.55점, 고사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30.86점으로 나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은 부적의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설정했던 가설 2-4는 지지되었다.

한편 Scheffe의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가족응집성의 경우 악성댓글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 미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의 차이는 각각 2.06과 4.49의 평균차가 $p<.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냈다. 가족적응성의 경우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이 1.99, 미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이 3.68의 평균차를 가지며 각각 $p<.001$ 과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의 차이는 각각 2.42($p=.124$)와 1.69($p=.270$)로 그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함께 언급한 자세한 분석 결과를 <표 19>에서 제시하였다.

<표 19>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심리사회적 특성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F	Sig.
	M(SD)	M(SD)	M(SD)		
가족응집성	36.53 (7.002)	34.47 (7.340)	32.05 (8.018)	11.356	.000
가족적응성	34.54 (6.487)	32.55 (6.323)	30.86 (5.883)	11.685	.000

5. 악성댓글 사용을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변인

마지막으로 악성댓글 사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악성댓글 사용 총점이고, 독립변인은 자아존중감, 불안과 우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으로 설정하였다. stepwise 방식을 도입한 분석 결과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과 가족적응성, 불안이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악성댓글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

변인	B	SE	β	t	p
우울	.189	.023	.293	8.163	.000
가족적응성	-.077	.024	-.119	-3.147	.002
불안	.110	.035	.149	3.147	.002

V 논의

1.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과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악성댓글 사용과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 수준에 따라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서 보이는 자아존중감과 불안 및 우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악성댓글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하는 고사용집단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가량 악성댓글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앞서 살펴본 몇몇 선행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미사용집단(N=336)과 저사용집단(N=333)이 거의 동일한 응답률을 보이며, 특히 상당히 많은 수의 응답자로 이루어져 있는 저사용집단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성숙한 윤리 의식이 미처 확립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층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된 악성댓글 사용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미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악성댓글 사용 예방 대책 수립 등이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요구되고 있다(서창미, 2010; 조아라, 이정윤, 2010).

또한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가 거의 동일한 점은 현재 생활화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높은 악성댓글 사용량을 보여주는 예이다. 아울러 고사용집단의 응답자 수는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에 비해 매우 적지만, 심각한 내용을 잦은 빈도로 여러 차례 사용한다고 보고한 점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한 사람 가운데 상위 5%가 전체 댓글에서 44.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2009a)의 설문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하루 1시간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의 경우 하루에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외 연구 중 Li(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동·청소년이 자주 찾는 악성댓글 사용 매체를 살펴본 결과, ‘게임/오락/성인사이트(20.8%)’에서 악성댓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간략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대부분이 게임 관련 사이트에서 게임 공략 방법에 대한 논쟁, 아이템 거래 시 발생하는 비도덕적 문제, 게임 내에서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상대방에게 악성댓글을 사용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은 문항에서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가 2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서'라는 의견이 14.8%로 2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타인과 의견차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을 경우 아동과 청소년은 악성댓글을 사용하여 공격성을 표출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악성댓글 사용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보다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강한 대처 방안 계획 및 실천 지향의 교육적 차원의 도움이 악성댓글로 인한 가해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심해서 재미로(9.3%), '특별한 이유 없음(9.1%)' 또한 악성댓글의 사용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이유 없이 악성댓글을 작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15.8%에 이른다. 이는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심리적 이유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이 이유 없이 사용한 악성댓글이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적 양상과 실제 사례를 다룬 교육을 통해 악성댓글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추후 악성댓글을 사용한 가해 경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타인을 향한 악성댓글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피해와 고통을 느끼게 하는지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단순히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 무의미한 악성댓글의 남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ampbell(2007)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돕는 교육과 가치 교육(Values Education), 공감 훈련, '네티켓' 교육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실시와 참여가 사이버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미사용 집단은 25.6%만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미사용집단과는 달리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은 각각 60.4%와 69%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따라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일수록 그 피해 경험 또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시의 정서 상태를 묻는 문항에서는 ‘화가 났다’는 의견이 전체 2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결과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저사용집단의 경우 ‘화가 났다’는 의견에 이어 2순위로 11.4%의 응답자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고 응답한 것이며, 고사용집단의 경우 16.7%의 응답자가 ‘당한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다고 보고한 점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악성댓글 피해 경험 시 대처 행동을 알아보았을 때, 응답자들은 대개 ‘무시했다(24.5%)고 보고하였으나 저사용집단의 경우 ‘내가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응답이 14.7%로 무시했다는 응답률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고사용집단은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악성댓글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피해 경험 여부 및 당시 정서 상태와 그에 따른 행동을 다룬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이전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미래의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의 강한 예측 요인이라고 설명한 Dilmac(2009)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이를 건강한 방법을 사용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고 피해로 인한 정서 상태를 공감해주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피해 경험 이후 악성댓글을 사용한 가해 행동으로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자아존중감과 불안·우울,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수준은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악플 경험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관계

를 다른 연구에서 악플 경험자들이 비경험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입증한 권미애(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 정서의 ‘불안’과 ‘우울’을 악성댓글 사용 수준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불안과 우울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러 변인 중 악성댓글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문제 행동이라는 공통점에서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게임 중독의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불안이 높게 나타난 정경란(2001), 권순희(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때 자아존중감과 불안 및 우울이 비교적 높은 상관을 가지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가정 및 학교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가족과 교사 및 또래의 상호 지지 및 격려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기상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도 직결되는 마음자세로써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도우면 자아존중감 수준의 향상과 함께 공격 형태로 표출되는 불안과 우울 수준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악성댓글 사용 수준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악성댓글을 자주 사용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결과가 분석되었다. 악성댓글이 타인을 향한 공격성의 표출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낮은 가족 간의 공유 활동 및 서로간의 지지 수준이 아동과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정안숙, 2003; Bowers et al., 1994; Jester et al., 2005)와 일치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과 신뢰감이 약할수록 사이버 폭력 행위는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한 寺戶(2009)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며, 그는 연구 결과를 통해 폭력 행위의 방지를 위해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감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역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악성댓글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악성댓글을 다룬 연구는 법제화와 미디어 관련 영역에서 수행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인간의 행동에 근간을 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행동의 기저에는 인간의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이유와 악성댓글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관계,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악성댓글과 심리적 특성 및 기타 변인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한 매개효과 검증 등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자아존중감의 고양과 불안·우울감의 감소,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한 가족생활양식 등을 다루는 심리 치료·예방 및 훈련 프로그램 제작과 사이버윤리 교육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이 속한 사회 집단(가정, 학교) 내에서 가족과 교사, 또래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튼튼하게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악성댓글 사용의 억제를 위한 인터넷 상의 시스템 개선 및 사회적 캠페인 실시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되어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연구 진행에서 발견된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물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설문 자료도 결과 분석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연구 표본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무척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역의 사람들을 고루 대상으로 삼아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결과는 모두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에 근거한다. 자기 보고식 질문지는 응답자의 주관적 관점 및 인식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표출과 같이 과대평가 및 과소평가의 다소 왜곡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 및 타인으로부터의 관찰 연구를 통한 정교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악성댓글’은 인터넷이라는 특수성을 띄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온라인에서 설문을 실시할 경우 인쇄된 설문지에 기록되는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설문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시각각 갱신되는 정보 속에서 설문 참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목을 지속적으로 끌기 쉽지 않았으며,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카페나 클럽 및 기업체에도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홈페이지 관리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반려되었다. 그 결과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설문의 높은 참여율 및 회수율을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있었다. 추후 연구 진행 시 실제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이용자 다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온라인 응답자와 오프라인 응답자의 차이를 포함하여 악성댓글 사용과 관련, 보다 높은 타당도의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악성댓글 고사용집단에 해당할 정도로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꽤 여럿 있었으나, 문항이 진행될수록 충동

적이고 불성실한 응답 태도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된 설문지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추후 낮은 연령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설문에 응답하는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학생들이 설문 내용과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한 ‘악성댓글 사용 경험 질문지’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설문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실제로 문항의 신뢰도 분석 시 신뢰할만한 내적합치도 수준을 보였으나 정밀한 수준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악성댓글 사용 수준의 분류 기준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기에 그 타당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악성댓글 사용을 다루는 보다 정교한 측정 도구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악성댓글을 비롯하여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사이버 언어폭력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질문에 응답하였을 당시 연구 대상자의 정서 상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개인적인 정황에 의해 평소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설문 실시 및 결과 분석에 앞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상태 파악 후 대상자를 선별하여 설문을 실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netan.go.kr/>
- 경찰청 (2010). 경찰, 개인정보침해 및 사이버폭력 특별단속 실시. 4월 5일.
- 경향신문 (2007). 다이어트 성공 TV출연 여고생 ‘악플’ 시달리다 자살. 6월 6일.
- 공감코리아 (2010). 경찰, 개인정보침해 및 사이버폭력 특별단속 실시. 6월 7일.
- 권미애 (2008).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연구: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희 (2010).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적 변인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아 (2008). 청소년의 공격성 변동의 영향요인: 3년 종단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달환 (2007). 인터넷 댓글 이용자의 사회·심리적 속성과 이용 동기, 이용 행위, 만족의 상관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성 (2008). 사이버상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03).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02). 중·고교 남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자아 존중감, 감정표현 불능증, 가족 내 적응력 및 결속력, 인격성향과의 연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 (2005). 아동 및 청소년에서 소아 우울척도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693-707.

- 김은영 (2009).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문화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휘, 김연정 (2004).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적 실재감의 지각과 공격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83-101.
- 김재휘, 김지호 (2002). 인터넷 일탈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3(2), 91-110.
- 김정미 (2010).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7(8), 79-104.
- 김지연 (2007).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정서조절에 대한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10). 아동의 놀이성과 어머니의 대상관계 특징이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균 (2007).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가족친밀도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4(2), 137-155.
- 김태진 (2008). 사이버표현행위에 대한 경찰규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 11-43.
- 김한주 (2010).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격적 반응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자비의 중재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연 (2006). 심리도식, 가족 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은 (2002).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 불안, 우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2008). 그에게 '칼'이 된 악플과 루머. 10월 6일.
- 동아일보 (2009a). 10개 중 4개는 기사 주제와 관계없는 '영똥 댓글'. 1월 15일.
- 동아일보 (2009b). 한국이 역겨워... 키작은 남자는 루저... 빵꾸똥꾸... 12월

22일.

동아일보 (2011). 송지선 아나운서 자살...결국 SNS의 비극이었다. 5월 25일.

라민오 (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성원 (2009).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가족 구조 요인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동 간의 관계: 성별 모형에 의한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731-758.

문화일보 (2006). 네이버, 1인 하루 댓글 10개로 제한. 4월 8일.

박순미 (2009) 초등학생의 사이버 악성댓글의 실태분석을 통한 법교육 개선방안.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원, 이성흠 (2010). 가상공간의 '악성 댓글'에 대한 자율규제와 네티켓 교육. 교육법학연구, 22(1), 21-47.

박현숙 (2010). 초등학생의 도덕성이 사이버일탈행동과 악성댓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연 외 (2005). 아동 발현 불안 척도(RCMAS)의 요인구조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4(2), 427-437.

방영자 (1997)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미영 (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민재 (2009).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신문 (2011a). '제2의 송지선' 하루 20명이 벼랑끝 놓인다. 5월 25일.

- 서울신문 (2011b). 맹목적 확대재생산... 군중의 '영혼 없는 클릭'. 5월 28일.
- 서창미 (2010). 인터넷 문화와 악성 댓글 성향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19), 79-129.
- 성윤숙, 이춘화, 유의선, 김성은 (2008).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8-R12-1.
- 세계일보 (2008). "인터넷서 욕 들었다" 사이버폭력 신고 급증. 8월 28일.
- 손진희, 손은령 (2007). 가정환경, 컴퓨터 과다사용 및 인터넷 관련 비행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1), 135-162.
- 송영이 (201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창현 (2007). 중학생의 사이버일탈 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진숙 (2008).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양윤재 외 (2007). 2007년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이용실태 조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KISCOM 2007-03.
- 양현정 (2002). 대학생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자아존중감의 안정성 및 수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희, 최진식 (2005).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등학생의 실태 연구. 한국인터넷

- 정보학회 2005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1), 457-461.
- 유상미 (2008). 폭력 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홍식 (2010). 악성 댓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3), 238-278.
- 이상준 (2003).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341-364.
- 이성식 (2004a).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 165-185.
- 이성식 (2004b).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18), 273-299.
- 이성식 (2006).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2), 421-440.
- 이성식 (2008).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6(1), 67-85.
- 이성식 (2009a).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의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79(3), 191-212.
- 이성식 (2009b).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비행에 있어서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사용시간의 영향작용: 세 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95-115.
- 이영희 (2008). 청소년의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에 대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내용특수성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선 (2006). 청소년기 우울증상과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비행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기, 우형진 (2010).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 인식, 연령,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1), 1-15.

- 이선학보, 27(1), 215-253.
- 이주영 (2007). 자아존중감 ·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춘 (2004). 사이버공간에서 공격성이 활성화되는 원인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학생생활연구, -(25), 33-57.
- 이현우 (2009). 청소년의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26(2), 163-198.
- 이혜린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 조아미 (2006). 청소년의 사이버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3(2), 1-17.
- 전숙영, 안윤영, 이정숙 (2005).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인터넷중독과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9(3), 487-503.
- 전지환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 우울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민 (2007). 악성댓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27), 173-201.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 U 시대의 인터넷 윤리. 고양: 이한출판사
- 정안숙 (2003). 가족 및 또래 관계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우울 및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권, 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

- 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4), 302-327.
- 정호선, 박경 (2009).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심리치료, 9(1), 27-45.
- 조선일보 (2011). 익명성 뒤에 숨어 '표적 마녀사냥'... 놀이처럼 즐겨. 6월 7일.
- 조선닷컴 (2011). 신상 털린 '해병대 김 상병' 알고 보니... 7월 9일.
- 조아라 (2009).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라, 이정윤 (2010).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17-131.
- 조윤주 (2003).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과 자아존중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준범, 송아영, 이순호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와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73-103.
- 주리에, 권석만 (2001). 인터넷을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과 유형분석: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심리과학, 10(1), 93-115.
- 주지현 (2008). 인터넷 악플을 다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11). 송지선 아나운서를 괴롭힌 SNS 폭력. 5월 26일.
- 최은영, 최인령(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 불안의 측정(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최해림 (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11(2), 183-197.

- 통계청 (2010). 가구 인터넷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http://www.kostat.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2009년 사이버폭력지수 측정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WP-2009-0079.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2010-0022.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한중욱 (2001).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훈희 (2005). 온라인 게임에서의 좌절경험에 의한 공격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순향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 부부갈등, 폭력노출 경험과 공격성간의 관계.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주연 (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혜 (1999).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상민 (2000). 사이버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서울: 김영사.
- 황상민 (2004).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서울: 21세기북스.
- 황지영 (2008). 인터넷게시판상의 언어폭력의 설명요인에 관한 경험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uman, S. (2007). *Cyberbullying: a virtual menace*. Paper to be presented at the National Coalition Against Bullying National Conference. Melbourne, Australia. Retrieved from <http://www.ncab.org.au/Assets/Files/Bauman,%20%20S.%20Cyberbullying.pdf>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New York.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15-232.
- Brown, K., Jackson, M., & Cassidy, W. (2006). Cyber-bullying: Developing a policy to direct responses that are equitable and effective in addressing this special form of bullying.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57. Retrieved January 15, 2007 from http://umanitoba.ca/publications/cjeap/articles/brown_jackson_cassidy.html
- Campbell, M. A. (2007). Cyber bullying: An old problem in a new guise?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5(1), 68-76.
- Dempsey, A. G., Sulkowski, M. L., Dempsey, J., & Storch, E. A. (2011). Has Cyber Technology Produced a New Group of Peer Aggressor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5), 297-302.
- Diamanduros T., Downs, E., Jenkins, S. J. (2008). The role of school psychologists in the assessmen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cyberbully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45(8), 693-704.
- Dilmac, B. (2009). Psychological Needs as a Predictor of Cyber Bullying: A Preliminary Report on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9(3), 1307-1325.
- Dollard J., Doob, L., W. Miller, N. E.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onnellan M., Trzesniewski, K., Robins, R., Moffitt, T., & Caspi, A.

-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
- Espelage, D. L., Swearer, S. M. (2003). Research on School Bullying and Victimization: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School Psychology Review, 32(3)*, 365-383.
- Gorman-Smith, D., Tolan, P. H., Zelli, A. & Huesmann, L. R. (1996) The relation of family functioning to violence among inner-city minority youth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115-129.
- Gunn, D. A. (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UK. *World Wide Web*.
- Hollist, D. R., Hughes, L. A., Schaible, L. M. (2009). Adolescent maltreatment, negative emotion, and delinquency: An assessment of general strain theory and family-based strai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4)*, 379-387.
- Jester, J. M., Nigg, J. T., Adams, K., Fitzgerald, H. E., Puttler, L. I., Wong, M. M., et al. (2005). Inattention/hyperactivity and aggress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Heterogeneity of trajectories and differential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characteristic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99-125.
- Johnson, J. M. (2009). *The impact of cyber bullying: A new type of relational aggression*. Paper based on a program presented at 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and Exposition, Charlotte, NC. Retrieved from www.counselingoutfitters.com/vistas/vistas09/Johnson.doc
- Johnson, M. C., Kercher, G. A. (2007).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 theory. *Deviant Behavior*, 28, 131-152.
- Joinson, A. N. (2003)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Internet Behavior: Virtual Worlds, Real Lives*. Palgrave MacMillan.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Li, Q.(2007). New Bottle but Old Wine: A Research of Cyberbullying in School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4), 1777-1791.
- Marcotte, G., Marcotte, D., Bouffard, T. (2002) The influence of familial support and dysfunctional attitudes on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uropean JournCyber-bullying: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schoo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7(4), 363-376.
- Mesch, G. S. (2009). Parental Mediation, Online Activities, and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12(4), 387-393.
- Miller, N., Pedersen, W. C., Earleywine, M., & Pollock, V. E. (2003). A Theoretical Model of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 75-97.
- Olson, D. H., Lavee, Y. (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86-798.
- Paulhus, D., Robins, R., Trzesniewski, K., & Tracy, J. (2004) Two replicable suppressor situations in personality resear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2), 303-328.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r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205-246). Orlando, FL : Academic Press.

- Shariff, S. (2008). *Cyber-bullying: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school, the classroom and the home*. New York: Routledge.
- Smalley, R., & Stake, J., (1996) Evaluating sources of ego-threatening feedback: Self-esteem and narcissism effec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4), 483-495.
- Sproull, L., Kiesler, S. (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 1492-1512.
- Tafarodi, R. W., Swann, W. B. Jr. (1995). Self-liking and Self 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2), 322-342.
- Toch, H. (1993). Good violence and bad violence: Self-presentations of aggressors through accounts and war stories. In R. B. Felson, & J. T. Tedeschi (Eds.), *Aggression and violence: Social interactionist perspectives* (pp. 193-206).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 Walrave, M., Heirman, W. (2009). cyberbullying: predicting victimisation and perpetration. *Children & Society*, 25(1), 59-72.
- Willard N. E. (2005).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Paper based on a program presented at the 2005 OSDFS 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Retrieved from World Wide Web.
- Willard N. E. (2007).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Effectively Managing Internet Use Risks in Schools*. Retrieved from <http://www.cyberbully.org/onlinedocs/cbct.pdf>
- Wong-Lo, M., Bullock, L. M. (2011). Digital Aggression: Cyberworld Meets

- School Bullies. *Preventing School Failure*, 55(2), 64-70.
- Vogel, R., & Brown, S. (1983). Delinquent Self-concepts in juvenile correctional programs. *Journal of Offender Counseling Services Rehabilitation*, 7(2), 45-59.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Student British Medical Journal*, 7, 351-352.
-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25-36.
- Yu, J. & Gamble, W. C. (2008). Familial Correlates of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between Young Adolescent Siblings. *J Youth Adolescence*, 37(-), 655-673.
- 内海しよか (2010). 中學生のネットいじめ, いじめられ体験: 親の統制に対する子どもの認知, および関係性攻撃との関連. *教育心理學研究*, 58, 12-22.
- 寺戸武志 (2009). ネットいじめ加害と親子関係および道徳的規範意識との関連. 兵庫教育大學 學校教育研究科 修士論文.
- 原 清治 (2011). ネットいじめの實態とその要因(I) -學力移動に注目して-. *佛教大學教育學部論集*, 22, 133-152.
- 山崎 瞳, 原 清治 (2010). ネットいじめを規定する要因の實証的研究(I). *佛教大學教育學部學會紀要*, 9, 155-172.
- 吉田雅巳 (2009). サイバーブリングとネット上いじめ問題. *千葉大學教育學部研究紀要*, 57, 1-8.

ABSTRACT

A Study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post Malicious Replies in cyber spaces

Won, Da Hee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post malicious replies in cyber spaces. The subjects were 711 elementary school · middle school · high school students recruited from Seoul Metropolitan areas and other provinces. The scales such as Rosenberg Self-Esteem Scale, RCMAS(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CDI(Child's Depression Inventory), and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III) were administered. Data were analysed by using SPSS 17.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le children and adolescents showed higher frequencies to

write malicious replies than the female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it was also found that groups who wrote malicious replies frequently spent more time, using internet services than the ones who do not.

Second,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posted malicious replies showed lower self-esteem than the ones who did not. Additionall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severity level of writing malicious replies and the negative emotional level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The analysis also indicated that the very frequent malicious repliers tended to have lower 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than the students with lower frequent malicious repliers. Finally, the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cyber verbal bullying, malicious reply, self-esteem, anxiety, depressio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부 록

부록 1. 악성댓글 사용 경험 설문지

부록 2. 자아존중감 척도

부록 3. 소아·청소년 불안 척도

부록 4. 아동 우울 검사

부록 5.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

부록 1. 악성댓글 사용 경험 질문지

성별	남자	여자	나이	만 () 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주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1. 보통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1시간미만	1 ~ 2시간	2 ~ 3시간	3 ~ 4시간	4시간 이상

2. 인터넷을 하며 악플을 쓴 경험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얼마나 썼는지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없다	1~2번	3~4번	5번이상
욕을 한 적이 있다.				
비웃거나 무시하며 놀린 적이 있다.				
비난하는 내용을 쓴 적이 있다.				
'~카더라'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약점을 들어 인신공격을 한 적이 있다.				
겁을 주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연속으로 글을 써서 도배한 적이 있다.				
성적인 내용을 쓴 적이 있다.				

3. 인터넷을 하면서 악플을 쓴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 1) 포털 뉴스(다음, 네이버, 네이버 등)
- 2) 언론/방송사/공공기관 홈페이지
- 3) 기업/쇼핑몰
- 4)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DC인사이드, 베스트즈 등)
- 5) 블로그/미니홈피
- 6)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 7) 게임/오락/성인사이트
- 8) 동영상 관련사이트(유튜브, 엠군, 엠엔캐스트, 판도라TV 등)
- 9) 해당사항 없음

4. 인터넷에서 악플을 쓴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 2)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 3)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
- 4)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 5) 심심해서 재미로
- 6) 특별한 이유 없음
- 7) 기타 _____
- 8) 해당사항 없음

5. 악플로 인해 상처받거나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 1) 슬프고 우울했다
- 2) 화가 났다
- 3) 불안하거나 초조했다
- 4) 내가 당한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
- 5)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6)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가 두렵고 위축되었다.
- 7) 기타 _____
- 8) 해당사항 없음

6. 악플로 인해 상처받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 1) 내가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플을 달았다
- 2) 인터넷이 아닌 실제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 3) 가족, 친구나 선생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다
- 4) 상처와 피해를 잊기 위해 다른 일(학업, 취미 생활 등)에 몰두했다.
- 5)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 6) 그냥 무시했다.
- 7) 기타 _____

부록 2. 자아존중감 척도

문 항	정말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5. 나는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7.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9. 나는 때때로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10.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록 3. 소아·청소년 불안 척도(RCMAS)

* 는 허구문항

문 항	예	아니오
1. 나는 마음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2. 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일을 쉽게 해내는 것 같다.		
4.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좋아한다.(*)		
5. 나는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다.		
6.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7. 나는 겁나는 일들이 많다.		
8. 나는 언제나 친절하다.(*)		
9.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0.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를 걱정한다.		
1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 다.		
12. 나는 항상 남에게 좋은 태도로 대한다.(*)		
13. 나는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한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기분이다.		
16. 나는 항상 착하다.(*)		
17. 나는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1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19. 내 손이 땀에 젖어 있다.		
20.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다.(*)		
21. 나는 자주 피곤하다.		
22.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2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하다.		
24.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얘기한다.(*)		
25. 나는 무서운 꿈을 꾀다.		
26. 나는 남들이 간섭을 하면 쉽게 마음이 상한다.		
27.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잘못한다고 말할 것 같다.		
28.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29. 나는 가끔 놀라서 잠을 깬다.		
30.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무섭다.		
31. 나는 학교 공부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다.		
32. 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33. 나는 얌전히 앉아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린다.		
34. 나는 예민하다.		
35.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36.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7.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주 걱정한다.		

부록 4. 아동 우울 검사(CDI)

1	나는 가끔 슬프다 나는 자주 슬프다 나는 항상 슬프다
2	나에게는 제대로 되어 가는 일이란 없다. 나는 일이 제대로 되어 갈지 확신할 수 없다. 나에게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 갈 것이다.
3	나는 대체로 무슨 일이든지 웬만큼 한다. 나는 잘 못하는 일이 많다. 나는 모든 일을 잘 못한다.
4	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더러 있다. 나는 어떤 일도 전혀 재미가 없다.
5	나는 언제나 못했다. 나는 못했을 때가 많다. 나는 가끔 못했다.
6	나는 가끔씩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나는 나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7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8	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이다. 잘못되는 일 중 내 탓인 것이 많다. 잘못되는 일은 보통 내 탓이 아니다.
9	나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자살에 대하여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자살하고 싶다.
10	나는 매일 울고 싶은 기분이다. 나는 울고 싶은 기분인 날도 많다. 나는 때때로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11	이 일 저 일로 해서 늘 성가시다. 이일 저일로 해서 성가실 때가 많다. 간혹 이일 저일로 해서 성가실 때가 많다.
12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다.
13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린다.

14	나는 괜찮게 생겼다. 나는 못생긴 구석이 약간 있다. 나는 못생겼다.
15	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언제나 노력해야만 한다. 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많이 노력해야만 한다. 나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학교 공부를 해낼 수 있다.
16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나는 잠들기 어려운 밤이 많다. 나는 잠을 잘 잔다.
17	나는 가끔 피곤하다. 나는 자주 피곤하다. 나는 언제나 피곤하다.
18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다.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많다. 나는 밥맛이 좋다.
19	나는 몸이 쭈시고 아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몸이 쭈시고 아픈 것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나는 몸이 쭈시고 아픈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
20	나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자주 외롭다고 느낀다. 나는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21	나는 학교생활이 재미있었던 적이 없다. 나는 가끔씩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나는 학교생활이 재미있을 때가 많다.
22	나는 친구가 많다. 나는 친구가 좀 있지만 더 있었으면 한다.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23	나의 학교 성적은 괜찮다. 나의 학교 성적은 예전처럼 좋지는 않다. 내가 예전에는 무척 잘하던 과목의 성적이 요즘에는 푹 떨어졌다.
24	나는 절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없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있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다.
25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분명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26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을 대체로 한다.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을 대체로 하지 않는다.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27	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나는 사람들과 잘 싸운다. 나는 사람들과 언제나 싸운다.

부록 5.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0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도움을 청한다.					
02.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0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인정한다.					
04. 자녀들도 자신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05.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만 함께 일하기를 좋아한다.					
06. 식구 중 누구라도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07. 우리 가족은 외부 사람들보다는 우리 가족끼리 더 친하다.					
08. 우리 가족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킨다.					
09. 가족끼리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0.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11.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매우 친하게 느낀다.					
12. 우리 가족은 의사 결정시 자녀들도 함께 참여한다.					
13. 우리 가족은 가족 행사가 있을 때, 가족이 모두 참여한다.					
14. 우리 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규칙이 바뀔 수 있다.					
15.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16. 집안일을 할 때 식구 모두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					
1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식구들과 상의한다.					
18. 우리 가족 중 누가 지도자인지는(주도적 역할) 정해져 있지 않다.					
19. 우리 집은 가족의 단합 및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20. 우리 집은 집안일을 할 때,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